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 보고서
- 발칸반도 -

2006. 5.

해외건설활성화 TF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 보고서
- 발간반도 -

2006. 5.

편집진 :

이의섭(건설산업연구실장)

김민형(건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강운산(건설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차례>

I. 터키	1
1. 기본 사항	1
2. 경제 현황	3
3.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5
II. 루마니아	9
1. 기본 사항	9
2. 경제 현황	11
3. 정치 및 사회 동향	15
4. 외국인 투자 정책	16
5.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제도	17
6.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19
7. 외국 및 한국 업체 진출 현황	24
III. 불가리아	27
1. 기본 사항	27
2. 경제 현황	29
IV. 그리스	33
1. 기본 사항	33
2. 경제 현황	35
V. 슬로베니아	37
1. 기본 사항	37
2. 경제 및 대외거래 동향	38
3. 한국업체 진출 현황	39

VI.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41
1. 기본 사항	41
2. 경제 현황	42
3. 정치·사회 현황	45
4. 한국업체 진출 현황	46
VII. 크로아티아	47
1. 기본 사항	47
2. 경제 현황	48
3. 정치·사회 현황	51
4.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52
VIII. 마케도니아	53
1. 기본 사항	53
2. 경제 현황	54

〈표 차례〉

〈표 I-1〉 터키의 국가 개요	2
〈표 I-2〉 우리나라와의 관계	3
〈표 I-3〉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4
〈표 I-4〉 터키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5
〈표 II-1〉 루마니아의 일반 현황	11
〈표 II-2〉 루마니아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13
〈표 II-3〉 루마니아의 주요 국제 경제 지표	14
〈표 II-4〉 주요 외국업체 진출 현황	24
〈표 II-5〉 한-루마니아 무역 실적	25
〈표 II-6〉 한국 건설업체의 루마니아 수주 현황	26
〈표 III-1〉 불가리아의 국가 개요	28
〈표 III-2〉 우리나라와의 관계	29
〈표 III-3〉 불가리아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31
〈표 IV-1〉 그리스의 국가 개요	34
〈표 IV-2〉 우리나라와의 관계	35
〈표 IV-3〉 그리스의 주요 경제지표	35
〈표 IV-4〉 그리스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36
〈표 V-1〉 슬로베니아의 일반 현황	38
〈표 V-2〉 슬로베니아의 주요 경제 지표	39
〈표 V-3〉 한-슬로베니아 무역 실적	40
〈표 VI-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일반 현황	41
〈표 VI-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44
〈표 VI-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요 국제 경제 지표	45
〈표 VI-4〉 한-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무역 실적	46
〈표 VII-1〉 일반 현황	47
〈표 VII-2〉 국내경제지표	48
〈표 VII-3〉 국제경제지표	50
〈표 VIII-1〉 일반 현황	53
〈표 VIII-2〉 국내경제지표	54
〈표 VIII-3〉 국제경제지표	54

제1장 터키

1. 기본 사항

○ 국가개요

- 터키(Republic of Turkey)는 아시아 대륙 서쪽 끝의 소아시아 반도 전부와 유럽의 발칸반도 남동부에 걸쳐있는 공화국임.
- 면적은 78만km²(한반도의 3.5배), 인구는 7천 200만명(2004년 기준)임.
- 수도는 앙카라(Ankara)이고, 앙카라시의 인구는 3백만명임(2004년 기준).
- 민족은 터키인 90%, 쿠르드족 및 아랍인이 10%이고, 언어는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음. 종교는 회교가 99%임.
- 지형은 대부분 산악지방이며 해안선을 따라 좁은 평원, 중앙에 고원 지대가 있음.
- 지진대가 지나고 있어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연안은 제1급 지진대에, 이스탄불 지방은 제2급 지진대에 속해 있음.
- 기후는 마르마라해 연안은 지중해성 및 흑해성 기후의 특성을 가지며 가을과 겨울에 비가 많고 봄에도 호우가 많음.

<표 I -1> 터키의 국가 개요

일반	위 치	: 흑해 및 지중해 연안
	면 적	: 780천 km ² (한반도의 3.5배)
	기 후	: 지중해성 및 해양성(해안지방), 대륙성 기후(내륙지방)
	인 구	: 72백만명(2004)
	수 도	: Ankara(3백만명)
	민 족	: 터키(90%), 쿠르드 및 아랍족(10%)
	언 어	: 터키어
정치	종 교	: 회교(99%)
	독 립 일	: 1923.10.29 (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가미)
	국가원수	: Ahmet Necdet Sezer 대통령 (Recep T. Erdogan 총리)
	의 회	: 단원제(550석)
	주요정당	: 정의개발당(AKP), 민주좌익당, 조국당, 정도당
	국제기구가입	: UN, IMF, OECE, WTO, ILO, NATO
경제	G D P	: 2,929억 달러(2004)
	1인당 GDP	: 4,050달러(2004)
	화폐단위	: New Turkish Lira (YTL), 2004년까지는 Turkish Lira (TL)
	회계연도	: 1.1 ~ 12.31
	산업구조	: (2003) 농업 11.8%, 제조업 26.8%, 건설업 3.5%, 서비스업 57.9%
	주요수출품	: 석유류, 철·금속, 농산물, 식품
	주요수입품	: 전자기계, 광산물, 금속, 화학품, 운송장비
	주요부존자원	: 석탄, 석유, 궤, 크로뮴, 보오크사이트
	경제개발계획	: IMF 지원 하의 경제안정화 계획
	경제적강점	: 미개발 천연자원 풍부
	경제적약점	: 외채상환부담 과중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은 1957년 3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북한과는 국교를 수립하지 아니 하였음.
- 우리나라와 체결한 주요 협정은 사증면제협정(72년), 문화협정(74년), 항공협정(79년),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6년) 및 투자보장협정(94년)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류 및 기계류 제품이고, 우리나라가 불가리아에서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철강, 담배, 화학 제품 및 광산물 등임.

2 · 중소기업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 보고서

- 우리나라가 불가리아로 수출하는 규모는 2004년 23억 달러 규모이고, 수입 규모는 1억만 달러 규모임(<표 I-1> 참조).

<표 I-2>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57. 3. 8 수교(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체결	사증면제협정(72), 문화협정(74), 항공협정(79)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 이중과세 방지협정(86), 투자보장협정(94)			
무 역 현 황	2002	2003	2004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866	1,375	2,356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류, 기계류
수입(천 달러)	125	78	104	철강, 담배, 화학제품, 광산물
투자실적	(2004년 말 현재, 순투자기준) 21건, 94,403천 달러(제조업)			

2. 경제 현황

(1) 일반경제현황

- 2001년에는 외채 급증, 은행 자산 부실화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악화, 이자율 폭등 및 물가 불안 등이 초래되어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음.
- 정부는 2002년 2월 IMF로부터 17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¹⁾을 지원받는 동시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수행하여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대 테러 전쟁 수행한 지정학적 중요성 등으로 양국간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1)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SBA)이란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통용되는 IMF의 신용제도로서 단기유동성을 지원할 때 쓰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IMF에 전달해야한다. IMF는 차관제공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제공 가능한 차관액과 향후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시행할 경제정책(adequate safeguards)을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IMF는 채무국이 약정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감독하면서 각 분기별로 정책집행의 정도를 심사, 후속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대출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대기성차관(SBA)은 싼 이자(4.5%)만 물면 되고 만기도 3년~5년으로 비교적 길다.

- 2005년 1월 1일자로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을 단행하여 100만 터키리라 (TL)을 1신터키리라(YTL)로 변경한 이후 환율은 점차 안정되고 있음.

<표 I -3>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제 성 장 른	-7.4	7.8	5.8	8.9	4.8
1 인 당 GDP	2,101	2,620	3,362	4,050	-
재 정 수 지 / GDP	-19.6	-14.5	-11.2	-7.0	-6.1
소비자물가상승률	54.4	45.0	25.3	8.6	8.2

(2) 최근의 경제 동향 및 전망

○ 최근의 경제 동향

- 터키는 2001년도 경제위기 이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2004년 설비투자 증가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8.9%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수입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4.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와의 협의를 통한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02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04년에는 7.0%를 기록하였음. 2005년에는 저금리에 따른 정부채권의 이자 부담 완화 및 세수 확대에 힘입어 6.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중 54.4%에 달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 및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꾸준히 하락하여 2004년 중 8.6%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 임금 인상 둔화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전망함.
- GDP의 산업별 구성(2003년)은 서비스업 57.9%, 제조업 26.8%, 농어업 11.8%, 건설업 3.5%, 최대 교역 상대국은 독일임.

-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IMF의 요구에 따른 은행, 외환제도 등 금융 부문 개혁, 조세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IMF는 2002~2004년 중 대기성 차관 17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5~2007년 중 100억 달러를 신규 지원하기로 하였음.
- 경상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이며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음. 2005년에는 수입 수요 증가와 석유 수입 증가 등으로 GDP의 5%인 18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표 I-4> 터키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상 수 지	3,390	-1,521	-7,905	-15,543	-18,507
경상수지/GDP	2.3	-0.8	-3.3	-5.2	-5.2
상 품 수 지	-3,733	-7,283	-14,010	-23,925	-28,727
수 출	34,373	40,124	51,206	67,000	72,493
수 입	38,106	47,407	65,216	90,925	101,220
외 환 보 유 액	18,733	26,884	33,793	35,480	41,585
총 외 채 잔 액	113,351	131,185	145,662	161,500	160,400
총외채잔액/GDP	77.6	71.2	60.8	55.0	47.9
D S R	62.5	56.5	42.9	61.2	31.8

자료 : IFS, EIU

3.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 기본 정책

-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자유무역지대법」이 있음.
- 터키는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경제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띠었음.

-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중임.
-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으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다만, 일부 산업은 국가 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이 제한되나, 관광, 교육, 보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도 보장됨.
- 실제로 내국인 고용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에도 제한이 없으며 과실 송금도 보장됨.
-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 공단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입주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관광, 에너지, 항만, 도로 등의 설비를 BOT 방식으로 적극 유치하고 있음.
- EU 가입에 대비하여 2004년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 중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 터키 정부는 1954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Law to promote foreign capital investment, 법률 제6224호)를 2003년에 개정하여 2003년 6월 17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자본에 의한 회사 설립이 심사·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회사 설립 수속이 원스톱화되어 종래 19단P의 수속이 3단계로, 2개월 반의 수속이 1일로 단축

- 분쟁 처리의 국제 조정 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보증
 - 투자신청시 최저 자본금 규정 5만달러 규정 폐지
- 신외국인투자법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3조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하 주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신외국인투자법 원문 및 영문은 www.treasury.gov.tr/realsectorleg.htm 참조).
- 국내외 투자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취급할 것을 보증
 - 외국 투자 몰수와 국유화가 없을 것을 보증
 - 자본 이전의 자유를 보증
 -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조정 기관의 개입을 보증
 - 비현금 자본은 터키 상법의 규정에 근거해 평가외국인에 대한 모동 허가는 노동·사회 보장청이 발행
 - 주재원 사무소의 개설 인가는 종래대로 재무부가 담당

제2장

루마니아

1. 기본 사항

- 현지 발음으로 ‘로르니아’라고 불리우는 루마니아(Romania)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북쪽에 위치(북위 46도, 동경 25도)하며, 면적은 237,500km²(육지 230,340km², 수로 7,160 s/m)로 한반도의 1.1배 정도임.
 - 수도는 부카레스트(Bucharest, 현지명 Bucuresti 부쿠레쉬티)임.
 - 대서양 연안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우랄산맥과의 중간쯤에 있음.
 - 불가리아, 헝가리, 몰도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와 접경해 있음.
-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봄, 가을은 짧고, 여름, 겨울은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일교차가 크며, 습도가 낮아 쾌적하며, 한국 기후와 흡사하나, 집중 호우는 없음.
 - 겨울은 춥고 날씨가 흐리며, 눈 및 안개가 많음.
 - 여름은 대부분 맑으나 소나기 및 폭풍우가 동반되기도 함.
 - 수도 부카레스트를 포함한 남부 및 남서부 지역은 지진 위험대에 속하며, 약간의 호우에도 산사태가 많이 남.
- 지형은 국토 중앙부를 역L자 모양으로 카르파치안 산맥이 관통하고 있음.
 - 동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트란실바니아 대분지(헝가리 대평원과 연결), 동쪽은 몰다비아 대평원임.
- 국토는 경작 가능지가 39.6%이며, 산림 및 잡목지 26.7%, 작물재배지 3%, 목초지 19.9%, 포도원 및 과수원 2.5%, 강·호수 3.8%로 구성됨.
 - 농업 및 축산업으로 이용가능면적은 전국토의 62%임.

- 주요 천연자원으로는 원유(매장량 감소 추세), 목재,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소금 등이 있음.
- 2004년말 현재 인구는 2천 180만명으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폴란드에 이어 2위임.
 - 남녀 비율은 0.91/1 비율이며, 연간 인구증가율은 -0.21%임.
 - 연령별 비율을 보면, 0~14세가 19%, 15~64세가 68%, 65세 이상이 13%임.
 - 종족구성은 루마니아인 89.5%, 헝가리인 6.6%, 이탈리아인 2.5%임.
- 종교는 루마니아 정교가 8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톨릭 4.7%, 개신교 3.2%로 구성됨.
- 언어는 공용어로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및 독어를 사용함.
- 화폐단위는 Leu(복수는 Lei)이며, RON으로 표기, 2006년 1월 13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2.9963 RON, 1유로는 3.6391 RON수준임.
 - 2005. 7. 1부터 기존 화폐 단위인 ROL의 가치를 1/10,000로 절하하는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을 실시하고, 신화폐 단위인 RON을 도입(1 RON = 10,000 ROL)

<표 II-1> 루마니아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유럽 동남부 ·면적: 23.8만km ² (한반도의 1.1배) ·기후: 온화한 대륙성 기후 ·인구: 2,170만 명(2004년) ·수도: 부카레스트(Bucharest) (193만 명) ·민족: 루마니아인 89.5%, 헝가리인 6.6%, 이탈리아인 2.5% ·언어: 루마니아어(공용어), 헝가리어, 독일어 ·종교: 루마니아정교 86.7%, 가톨릭 4.7%, 개신교 3.2%
정치	·독립일: 1881(터키)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의원내각제 가미) ·국가원수: 버세스쿠(Basecu) 대통령(2004.12.20 취임, 임기 5년) ·수상: 터리체아누(Tariceanu)총리(2004.12.28 취임) ·국제기구가입: UN, IMF, IBRD, GATT 등
경제	·GDP: 732억 달러 (2004) ·1인당 GDP: 3,362 달러 (2004) ·화폐단위: Leu(복수 Lei) ·산업구조: 제조업 32%, 서비스업 38%, 농업 16%, 건설업 5%(2004) ·주요수출품: 의류/신발 26%, 금속제품 15%, 기계설비 11%, 광물/연료 6% (2004) ·주요수입품: 기계설비 23%, 연료/천연자원 12%, 의류 19%, 화학제품 9% (2004) ·주요부존자원: 석탄,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경제개발계획: 시장경제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추진 중 ·경제적 강점: 저렴한 숙련 노동력, 흑해연안의 항구 이용 가능 ·경제적 약점: 농업부문 낙후, 국내자본 빈약

2. 경제 현황

○ 일반현황

- 루마니아의 1인당 GDP는 4,000달러(2005년 추정)로 세계은행이 분류한 중위권 소득국가임.

- 취약한 산업구조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2004년 7월에 IMF와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중 2005년 10월 IMF측과의 마찰로 차관조건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농업 등 1차 산업이 GDP의 14.7%(2004년)를 차지하는 낙후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성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총수출의 70%는 EU국가들에 대한 수출이고,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로 유가변동에 노출되어 있음.
 - 주요 수출산업은 의류, 신발류, 가구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
- 2004년 NATO 회원국이 되었고,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1월에 EU가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치 불안정과 EU가입을 위한 개혁조치가 지연되면서 EU가입이 지연될 가능성 제기.
 - 체제전환 이후 되풀이된 정치 · 사회불안, 민영화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관료, 국영기업 관리자, 노조 등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주변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추진 성과가 매우 낮았음.
 - 특히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 결과 루마니아는 체제전환 이후 6차례 IMF와 자금지원에 합의하였으나, 단 한번도 성공적으로 IMF의 지원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최근 경제 동향

- 2005년 및 2006년 경제성장률 둔화
 - 급속한 여신증가 및 소득세율 인하조치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나,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와 홍수피해(7, 8월) 및 기상악화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여 2005년 성장률은 4.0%에 그친 것으로 추정.
 - 2006년에는 긴축 재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4%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5%내외로 전망.

-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억제목표치인 7.5%를 상회한 8.6%를 기록함.
- 2004년 이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이 2005년 말 현재 50%에 달하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신규 화폐(Lei)의 평가절상 조치가 수출가격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작용 초래.
-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긴축 통화정책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7.4%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 지출 억제, 조세행정 개선 등을 통해 재정적자 개선 추세
- 2004년 특히 에너지 가격 조정 및 국영기업 임금인상과 더불어 세수 확대, 조세행정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의 2.3%에서 1.1%로 개선.
- 2005년부터 소득세율을 16%(법인세: 25%→16%)로 인하하면서 단일화함.
- 200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조세수입의 47%차지) 19% 유지, 근로소득세 인하(5~10%)로 재정수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 상승이 예견되면서 재정지출 압력이 증대될 전망.

<표 II-2> 루마니아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제성장률	5.1	5.2	8.3	4.9 ^{주)}	4.5
재정수지 / GDP	-2.6	-2.3	-1.1	-0.8	-0.5
소비자물가상승률	22.5	15.3	11.9	8.6 ^{주)}	7.4

주 : 2005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적치임.

자료 : EIU, "ViewsWire", January 2006; 한국수출입은행, 국별리포트, 재인용.

- 급속한 수입증가율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증가, 수입확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
- 2005년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부문 무역적자 증가 외에도 투자용 기계류, 기자재 및 자동차 수입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9.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반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의류, 직물, 금속제품 등의 상품수지 흑자는 부진.

- 2006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Leu의 평가절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84억 달러(GDP 대비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의 비교적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유지함.
- 신규채권 발행 증가에 따라 2000년부터 외채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DSR(Debt Service Ratio: 외채상환부담률) 및 외채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005년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GDP의 34.0%인 315억 달러로 추정되며, DSR은 15.3%임. 한편, 2005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월 평균수입의 5.4개월분에 해당.

<표 II-3> 루마니아의 주요 국제 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 상 수 지	-1,500	-3,500	-5,600	-8,600	-8,400
경상수지 / GDP	-3.4	-6.0	-7.6	-9.3	-8.1
상 품 수 지	-2,600	-4,600	-6,700	-10,500	-11,200
수 출	13,900	17,600	23,500	27,300	31,000
수 입	16,500	22,200	30,200	37,800	42,200
외 환 보 유 액	6,125	8,040	14,616	20,886	-
총 외 채 잔 액	15,700	21,300	27,600	31,500	34,800
총외채잔액/GDP	34.3	37.1	37.7	34.0	33.5
D S R	18.9	17.2	15.3	15.3	15.3

자료 : EIU, ViewsWire, January 2006; 한국수출입은행, 국별리포트, 재인용.

3. 정치 및 사회 동향

-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정치 구조적 불안이 지속됨.
 - 1989년 공산체제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좌파, 우파, 민족주의계열, 소수 형가리게 등 다수의 정파가 난립함. 따라서 단일정파가 주도하는 정부구상이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혁정책 추진이 어려웠음.
- 중도 좌익으로 야당인 민주당(DP)의 후보였던 현직 대통령 바세스쿠 (Basescu, 2004. 12. 20 취임, 임기 5년)취임이후 대통령과 중도우익인 국민자유당(NLP)의 총리(테리체아누(Tariceanu) 2004. 12. 28 취임)간의 불화가 지속됨.
 - 2004년 총선과 동년 대선에서 각각 중도우익인 국민자유당(NLP)과 중도좌익인 민주당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연합정부 내 뿐아니라 정부와 의회간의 긴장관계가 증폭되어 경제개혁 추진 지연.
 - 2대 주요 정당간의 연합정권 분리양상이 지속될 경우, 연정붕괴 및 조기총선의 가능성도 제기
 - 특히 2007년 EU 가입을 앞두고 양당간의 긴장관계로 주요 정책 및 개혁 관련 조치시행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EU가입도 2008년 이후로 지연될 우려.
 -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당간에 대립양상 격화.
-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편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2005년 6.0% 수준)을 유지하며, 민족간, 종교적 갈등 등 기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내적 갈등요인은 없음.
 - 2000년 이후 경제성장 지속,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사회 불안정성은 크지 않음.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 인으로 구성되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민족간 분규는 없음.
- 주변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임.
 - 헝가리와 국내 소수민족 권익문제, 우크라이나와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 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심각한 분쟁사태로 발전된 것은 아님.
 - 인접국인 불가리아와는 2007년 EU 동시가입을 추진 중, 러시아와는 2003년 기본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 유지.

- 2007년 1월 EU가입 추진 중
 - 루마니아는 2000년부터 불가리아 등과 함께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31개 분야에 대한 가입협상을 완료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05년 4월 25일 가입조약(accession treaty) 체결이후 2007년 1월 EU 가입을 주요 외교정책의 목표로 추진
 - EU집행위원회는 2006년 4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가입준비 사항 등을 평가하여 가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

4. 외국인 투자 정책

○ 외국인 투자 정책 기조

- 루마니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①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우대, ② 다양한 시장 및 경제부문에의 참여보장, ③ 외국인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최소 개입의 3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시행됨.

○ 외국인 투자 현황

- 1990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외국인의 투자액은 총 44억 3,000만 달러이며, 참여기업 수는 7만 5,020개사임.
- 총 투자액 중 50%이상이 부카레스트에 투자됨.
- 주요 투자국으로는 프랑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등임.

○ 투자 보장 및 권한

- 루마니아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유화, 강제출국 내지는 몰수, 강제명령 그 외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적절한 법체계 및 보상체계에 의해 보호 받음.

-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른 투자자에게 계약의 권리나 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일로부터 투자활동기간 동안 법규에 의한 통제를 받으며, 현지인과 동등하게 법과 정부의 보호를 받음.

○ 이윤송금

- 외국인 투자자는 이윤을 경화형태로 본국에 송금할 수 있으며, 이때 송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됨.
-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루마니아에 재투자할 경우 이익의 50%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5.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제도²⁾

(1) 건설업 면허 · 허가제도

○ 허가 취득

- 현지 및 외국 건설회사는 「Quality에 관한 법령 1조/1995」 및 「설계, 공사 감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사 허가권자는 해당지역의 시장임.
- 공사허가 신청기관: 시청 건축과
- 허가까지 소요기간: 약 1~2개월
 -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극단적인 관료주의 병폐로 인해 뇌물을 공여하지 않을 경우 통상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2) 이는 해외건설협회, “국별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

○ 공종별 면허취득 여부

- 현지기업 및 외국인 건설회사가 민간, 공공부문의 건설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지 않음.

○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상 차별

- 외국회사는 표면적으로 입찰, 물품납품, 영업활동 등 건설업 영위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전해짐.
- 참고로 국가계산 부족, 관련법규의 수시 변경, 극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2) 지사 설치 제도

- 외국 건설기업이 루마니아에서 건설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역회사에 관한 법령 31조/1991」에 의거, 국가무역등록사무소(ONRC, National Office of Register of Commerce)에 법인 또는 지사설립을 등록해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서류종류, 기한, 등록요금 등 상세한 내용은 ONRC 산하 법인 지원사무소(BASC, Commercial Companies Assistance Office)에서 제공하고 있음.
- 설립 시까지 소요 시간: 서류 제출 후 약 10일 정도
- 등록비용: 평균 200만~500만레이(약 150~300달러)

6.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1) 개요

- 루마니아 건설산업의 GDP 대비 점유율은 1998년 5.3%(약 20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4.8%(약 18억 달러)로 감소함.
- 국가통계위원회가 루마니아의 75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2000.3)에 의하면, 2000년 1/4분기 건설산업 활동은 1999년 4/4분기에 비해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참가 건설회사들은 2000년 1/4분기의 발주물량 및 고용자 수가 1999년 4/4분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건설물가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추정, 전반적으로 건설산업 활동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건설경기는 통상적으로 겨울철인 1/4분기와 4/4분기 중 매우 침체된 경향을 보임.
 - 루마니아 건설사 관계자들은 금융문제, 수요 부족, 날씨 등을 건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지적함.

(2) 부문별 동향

① 주택

○ 동향 및 전망

- 총 주택수가 약 770만호(인구 1,000명당 297호)로 같은 중동구의 폴란드와 비슷하지만, 서구에 비해 평균 25~30% 정도 낮은 수준임.
- 1990년대 이후 주택 건설은 연 30,000호를 밀도는 수준임. 이는 2000년대 초까지 금융조달이 어렵고 인플레이와 이자율은 높은 반면, 생활수준 개선이 더디었기 때문임.
- 현재 루마니아의 주택은 약 100만호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어 당분간 주택수요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도 부카레스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압박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빈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프로그램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도시 주택의 약 75%가 1950~1990년 중 건설된 대단위 주택단지임. 물론, 열악한 주거 환경은 정부를 압박하여 주택프로그램 및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도입을 촉진시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 신설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수준의 한계로 2008년까지는 신축보다는 개보수 시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유형을 보면 건설 주택의 80% 이상이 단독 또는 2가구 공동주택임.
- 중산층 및 개인사업자가 주 수요층인 고급 주택부터 m²당 120달러에 불과한 교외지역 주택까지 매우 다양.
 - 최근 일부 부유층의 교외지역 별장 건설과 주재원 등 외국인 상대 고급주택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 시장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
 - 대부분 고급주택은 외국자본이 참여한 합작회사가 개발하고 있음.
- 개인주택 건설·입주 방식
- 건설업자가 1/2정도를 시공하고 입주자는 미완공된 주택에 입주
 - 입주 후 구옥을 팔고 건설자금의 잔여분 조달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기간이 보통 5~6년 정도 소요됨.
 - 건설자재는 국내자재는 주로 저가주택 건설에 사용되며, 고급주택에는 서구산 자재가 사용됨.
- 지역별 주택 건설 추이를 보면, 부카레스트와 1인당 GDP가 높고 실업률이 낮은 산업도시인 Arges, Prahova, Constanta 등이 가장 활발함.
- 저개발지역이지만 관광 및 국경무역이 활발한 동북지역도 비교적 건설경기가 활발한 편임.
 - 반면, 서부의 Arad, 남서부의 Caras, 동북부의 Harghita, 서부의 Hunedoara 등은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실적이 저조한 지역임.

- 정부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원조받고 있는 북동지역의 Moldavia시도 주택개발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기구도 향후 수년간 루마니아의 주택개발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루마니아는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국가주택청(National Dwellings Agency: ANL)을 신설.
- ANL은 정부보증 하에 3억 달러 상당의 외자를 도입.
 - 향후 루마니아 국민들은 총 주택구입 자금의 20%만 지불하면 약 9개월 정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80%의 금액도 20년 장기 분할상환하면 됨.
 - 이와 같이 정부는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신축 주택들은 각 지방정부가 제공한 부지에 건설됨.
- 주택 가격은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과다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하는 반면, 중소형 아파트는 보험세 또는 상승세를 보임.
- Bursa Constructiilor 잡지의 조사 자료(2000.3)에 의하면 관리비 급등으로 방 3~4개의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세에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하는 반면, 중소형 아파트(방 2개)매매가는 보험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 전망
- 지역별로는 Brasov지역의 Transylvanian시와 흑해 항구도시인 Constanta에서 매매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 반면, 그동안 상승했던 수도 부카레스트와 Timisoara지역의 서부 주요도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단열시설을 위한 주택 개보수와 소형주택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개보수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는 따뜻한 기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겨울철 기온이 매우 혹독하여 개보수 작업은 우선적으로 단열시설이 미비된 주택의 에너지 절약 사업과 루마니아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주택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개보수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소형주택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생활수준이 열악하여 그간 개보수 작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개보수 시장의 활성화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주택 금융

- 취약한 금융산업구조, 높은 인플레이 및 이자율로 주택건설을 위한 은행 대출이 전무한 루마니아에서는 주택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함.
- 루마니아개발은행(Romanian Bank for Development)과 루마니아상업은행(Romanian Commercial Bank)의 2개 은행만이 주택건설을 위한 모기지론 도입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주택금융 부문은 매우 취약함.
-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관련 금융제도가 속속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② 사무실 · 빌딩

○ 동향

- 사무실, 특히 고급사무실은 대부분 수도 부카레스트에 집중됨.
- 1994년 최초로 고급 사무실 빌딩인 World Trade Center(11,000m²)가 건설된 이후 서구자금의 지원 하에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계 부동산개발업체들에 의해 고급 사무실빌딩이 건설되고 있음.
- 그러나 바르샤바나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 주변 중동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시장규모는 작은 편임.

- 사무실 대부분이 매매가 아닌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월평균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 특급 사무실: 55달러/m²
 - A급 고급 사무실: 40~50달러/m²
 - B급 사무실: 25~35달러/m²
 - 빌라 사무실(현대화 시설 구비): 20달러/m²
 - 시설상태 열악한 사무실: 10~15달러/m²

○ 건축사업의 장단점

- 장점
 - 1998년 제정된 법규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대폭 감축됨.
 - 지금까지 외국인은 현지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1997년 12월 통과된 법안에 의해 국내 등록 외국 법인은 누구나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됨.
- 단점
 - 사무실 빌딩 건설시 적절한 건설 부지 확보가 어려움.
 - 개발 및 건설 관련 복잡한 각종 허가제도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빌딩 허가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
 - 불분명한 법규, 불확실한 소유권(토지 소유주가 1명 이상인 경우가 많음) 등도 부동산개발에 문제가 됨.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계약서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 지출이 매우 큼.

7. 외국 및 한국 업체 진출 현황

○ 주요 외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주요 외국업체 진출 현황은 <표 II-4>와 같음. 이외에 2000.1 이토추상사, 알스톰, 전력회사 포탐(핀란드)이 발전소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였으며, 동년 4월 프랑스의 Vivendi사가 부카레스트 상수도 관리권을 획득함.
- 이토추상사, 알스톰, 포탐은 루마니아전력공사가 계획 중인 서브의 데바(Deva) 석탄화력발전소 3호기(210MW) 개보수 공사를 76억엔(약 7,200만 달러)에 공동 수주함.
- 이토추는 이 프로젝트를 포함, 1997년 이후 총 5건(약 1억 9,000만 달러)의 발전소 개보수 사업을 루마니아에서 수주함. 향후 루마니아 국내시장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주변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프랑스의 세계적 환경그룹인 Vivendi사는 부카레스트의 상수 및 상수도망을 향후 25년간 대체할 업체로 선정됨.
- Vivendi사는 경쟁업체 보다 저렴한 수도요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Vivendi사는 수도물 공급 및 상수도망 관리를 위해 설립할 회사에 3,5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현지 관계기관은 Vivendi사가 앞으로 상수도처리장 건설 및 상수도망 현대화 등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II-4> 주요 외국업체 진출 현황

회사명	본사 국가	진출형태
Bouygues Romania Srl	프랑스	지사
Ozer Romania Taahut Veticaretas Srl	터키	지사
Lafarge Romcim	프랑스	합작법인
Solar Boneh Sa	-	합작법인

(3) 한국업체 진출 현황

○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0년 3월 30일 수교(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 수교)
- 한-루마니아 간 체결된 주요 협정
 - 무역협정, 체육교류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상 1990년), 문화협정, 항공협정 (이상 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일반사증면제협정 (1996.5) 등
- 투자실적은 2004년 말 현재 순투자기준 6건, 2억 2,341만 4천 달러임.
- 양국간 무역현황은 <표 II-5>와 같음.

<표 II-5> 한-루마니아 무역 실적

항목	교역규모	주요 교역품
수출(백만 달러)	· 254백만 달러(2004) · (2005년 11월, 326백만 달러)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선박, 기계류
수입(백만 달러)	· 146백만 달러(2004) · (2005년 11월, 80.8백만 달러)	철강판, 운동기구, 합금철, 의류, 목재류, 기계요소, 알루미늄, 동제품

○ 한국업체 진출 현황

- 우리나라는 대우, 삼성, LG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총 13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 대우: 종합상사, 자동차, 전자 조선, 은행부문
 - 삼성: 종합상사, 철강부문
 - LG: 종합상사, 전자, 정보통신

○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한국 건설업체의 루마니아 진출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까지 총 5건으로 약 6억 3,0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함.
- 공종별로는 플랜트 시설이 주를 이루며, 주요 공사로는 SK건설이 FCC Feed 탈황시설, 황산축매하 알킬레이션 설비공사, 대우건설의 자동차 조립공장 1단계 건설공사, 현대건설의 페트로브라지 50MW 열병합발전소 등이 있음.

<표 II-6> 한국 건설업체의 루마니아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누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4
합계	금액	630,309	532,580	0	0	97,244	485	0
	건수	5	3	0	0	2	0	0
건축	금액	150	150	0	0	0	0	0
	건수	1	1	0	0	0	0	0
산업	금액	630,159	532,430	0	0	97,244	485	0
	건수	4	2	0	0	2	0	0

자료: 해외건설협회.

제3장

불가리아

1. 기본 사항

○ 국가 개요

- 불가리아(Republic of Bulgaria)는 유럽 동남부의 발칸 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면적은 11만 1천km²(한반도의 1/2), 인구는 8백만명(2004년 기준)임.
- 수도는 소피아(Sofia)이고, 소피아시의 인구는 111만명임(2004년 기준).
- 민족은 불가리아인 85%, 터키인 10%, 집시 5%이며 언어는 불가리아어가 공용어이고, 종교는 불가리아정교가 80%, 회교 12%, 기독교가 6%임.
- 전통적으로 농산물이 풍부하여 농축산물과 식료품은 이 나라의 주요 외화 소득원이 되고 있음.
- 1878년 터키로부터 독립하였고, 공산체제에서 체제 전환한 국가임.
- 체제 전환 이후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정치 불안, 부패 만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불가리아 정부는 루마니아와 더불어 2007년 1월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EU 가입 이후에는 2009년 유로(Euro)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인당 GDP는 3,129달러(2004년)이고, 화폐 단위는 Leva(Lv)임.

<표 Ⅲ-1> 불가리아의 국가 개요

일반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북동부
	면 적	: 111천 km ² (한반도의 1/2)
	기 후	: 대륙성
	인 구	: 8백만명(2004)
	수 도	: Sofia(111만명)
	민 족	: 불가리안인(85%), 터키인(10%), 집시(5%)
	언 어	: 불가리아어(공용어), 터키어, 마케도니아어
	종 교	: 불가리아 정교(80%), 회교(12%), 기독교(6%)
정치	독 립 일	: 1878.3.3 (터키)
	정부형태	: 의회민주제
	국가원수	: Georgi Purvanov 대통령 (Simeon Saxe-Coburg 총리)
	의 회	: 단원제(240석)
	주요정당	: 시미언국민운동(SNM), 민주세력연합(UDF), 사회당(BSP)
경제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G D P	: 241억 달러(2004)
	1인당 GDP	: 3,129달러(2004)
	화폐단위	: Leva (Lv)
	회계연도	: 1.1 ~ 12.31
	산업구조	: (2003) 제조업 30.0%, 농림업 11.4%, 서비스업·기타 58.6%
	주요수출품	: (2003) 석유류 22.0%, 철강 8.1%, 화학제품류 6.0%
	주요수입품	: (2003) 석유·가스 14.7%, 석유류 11.2%, 기계·운송장비 10.6%
	주요부존자원	: 석탄, 망간, 구리, 철광석
	경제개발계획	: 민영화 계획 및 EU 가입을 위한 제도개혁에 주력
	경제적 강점	: 기계공업 발달
	경제적 약점	: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비대한 군수사업, 과중한 외채부담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은 1990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북한과는 1948년 11월 9일에 국교를 수립하였음.
- 우리나라와 체결한 주요 협정은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90년), 이중과세방지협정(95년), 항공협정(95년), 무역협정(90년)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불가리아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석유화학 제품, 수송기계 및 전자 제품이고, 우리나라가 불가리아에서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비철금속 제품, 정밀화학 제품 및 농산물 등임.

- 우리나라가 불가리아로 수출하는 규모는 2005년 1억 9천만 달러 규모이고, 수입 규모는 2천만 달러 규모임(<표 Ⅲ-2> 참조).

<표 Ⅲ-2>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90. 3.23 수교 (북한과는 1948.11.19)			
주요협정체결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정(95), 항공협정(95), 무역협정(96)			
무 역 현 황	2002	2003	2004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28,536	57,996	279,014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 전자제품
수입(천 달러)	14,861	18,065	19,829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농산물
투자실적	(2004년 말 현재, 순투자기준) 3건, 2,962천 달러(제조업)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2. 경제 현황

(1) 일반경제현황

-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4~5%대의 비교적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총 GDP는 26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3,379 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 분류에 의하면 중하위 저소득 국가임.
-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투자도 증대되어 2005년 중 GDP 대비 총투자는 25%에 달함.
 - EU 가입이 추진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여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FDI 순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엄격한 통화위원회 제도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0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로 추정됨.

<표 Ⅲ-3> 불가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제 성 장 른	4.1	4.9	4.5	5.6	5.7
1 인 당 G D P	1,570	1,650	2,154	3,129	-
재 정 수 지 / G D P	1.9	-0.0	0.7	3.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7.4	5.8	2.2	6.4	5.0

(2) 최근의 경제 동향 및 전망

○ 최근의 경제 동향

- 불가리아는 과거 소비에트블록에서 중공업에 특화되었던 구조적 취약성, 낙후된 설비, 미흡한 구조 조정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과대한 외채 및 경제개혁에 대한 이익 집단의 반발로 인해 주변 체제 전환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개혁 성과가 미흡했음.
- 1997년 경제위기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았으나, 1998년 9월 IMF와 차관 공여협상 타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음.
- 2004년 8월 IMF와 합의한 25개월 간 1억 5천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재정수지 관리, 공공부분 임금 및 여신 증대 억제, 경제구조 개혁(기업환경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 향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및 재정수지 관리 등 IMF와 합의한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여 왔으나 2005년 10월말 IMF 실시단과 합의 도출에 실패함.
 - 재정상황 호전, 외환보유액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이견, 여신 억제에 대한 이견 및 2005년도 경상수지 적자 목표치(GDP 대비 7.6%) 미달성 등으로 IMF와의 불협화음이 아직 미해결 상태임.
 - 2005년도 경상 수지 적자는 GDP 대비 15.6% 수준으로 추정됨.

-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 시행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나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97년 7월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연 1,000%를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율이 98년에는 18% 대로 급속히 안정되었으며, 97년 -7%이던 경제성장률도 2~3%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통화위원회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 제한과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저하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함.

<표 III-3> 불가리아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상 수 지	-984	-827	-1,855	-2,053	-3,912
경상수지 / GDP	-7.2	-5.3	-9.3	-8.5	-15.0
상 품 수 지	-1,580	-1,594	-2,519	-3,366	-5,041
수 출	5,113	5,692	7,541	9,848	11,480
수 입	6,693	7,287	10,059	13,214	16,521
외 환 보 유 액	3,247	4,362	6,175	8,712	,8,131
총 외 채 잔 액	10,497	11,479	13,289	16,590	16,340
총외채잔액/GDP	79.0	75.0	68.6	68.6	57.5
D. S. R.	18.1	16.7	10.5	17.4	15.9

자료 : IMF, IFS, 2006 및 EIU, Country Report: Bulgaria, Jan. 2006

○ 경제 전망

- 2006년과 2007년에는 임금 상승 둔화 및 중앙은행의 여신 제한 조치로 인한 내수 억제로 경제성장률 4%로 둔화가 예상됨.
- 수출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제 상황 호전이 예상되면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수지는 수출증대, 수입증가 둔화, 관광 수입 증가 및 EU의 지원으로 경상수지 개선 예상됨.
 - 2005년 12월에 합의한 2007 ~ 2013년 사이에 EU 예산안 중 110억 유로(EURO) 수혜 예정.
-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 차입 필요에 따른 외채 누적 지속 전망.

제4장

그리스

1. 기본 사항

○ 국가개요

- 그리스의 공식 국가 명칭은 그리스공화국(Hellenic Republic)이며,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최남단을 차지하고, 펠로폰네소스반도에 딸려있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 면적은 13만2천km²(한반도의 3.5배), 인구는 1천 100만 명(2004년 기준)임.
- 수도는 아테네(Athens)이고, 아테네시의 인구는 376만 명임(2004년 기준).
- 민족은 그리스인 97%, 터키인 등 기타 민족이 3%이고,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음. 종교는 그리스정교가 98%임.
- 그리스의 부존 자원은 보크사이트, 갈탄, 마그네사이트, 석유, 대리석 등이며,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임.

<표 IV-1> 그리스의 국가 개요

일반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
	면 적	: 132천 km ² (한반도의 3/5)
	기 후	: 지중해성
	인 구	: 11백만명(2004)
	수 도	: Athens(376만명)
	민 족	: 그리스인(97%), 터키인, 유태인
	언 어	: 그리스어
	종 교	: 그리스 정교(98%)
정치	독 립 일	: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 Kostas Stefanopoulos 대통령 (Costas Karamanlis 총리)
	의 회	: 단원제(300석)
	주요정당	: 사회주의운동당(Pasok), 신민주당(ND), 공산당(KKE)
경제	국제기구가입	: UN, IDA, NATO, OECD, IBRD, IMF, EU 등
	G D P	: 1,963억 달러(2004)
	1인당 GDP	: 18,471달러(2004)
	화폐단위	: Euro (EUR)
	회계연도	: 1.1 ~ 12.31
	산업구조	: (2002) 농림어업 7.3%, 광공업 16.2%, 무역·금융업 20.6%
	주요수출품	: (1999) 공산품 55.7%, 식료품 19.9%, 석유제품 11.6%
	주요수입품	: (1999) 소비재 42.6%, 자본재 25.6%, 식량 14.2%
	주요부존자원	: 갈탄, 보크사이트, 크롬
	경제개발계획	: -
	경제적강점	: 관광자원 풍부, 지리적 이점
	경제적약점	: 선진권에 비해 산업기반 취약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은 1961년 4월 5일일에 이루어졌으며, 북한과는 국교를 수립하지 아니 하였음.
- 우리나라와 체결한 주요 협정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협정(73년), 무역협정(74년), 사증면제협정(79년), 과학기술협정(87년), 항공협정(95년), 투자보장협정(95년) 및 이중과세방지협정(95년)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수송기계, 전자제품 및 직물이고, 우리나라가 그리스에서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논산물, 비금속광물 및 광물성 연료 등임.

- 우리나라가 불가리아로 수출하는 규모는 2004년 17억 달러 규모이고, 수입 규모는 1억만 달러 규모임(<표 IV-2> 참조).

<표 IV-2>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61.4.5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체결	발명특허권 및 상표협정(73), 무역협정(74), 사증면제협정(79) 과학기술협력협정(87),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이상95)			
무 역 현 황	2002	2003	2004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1,653,586	1,764,969	1,772,745	수송기계, 전자제품, 식물
수입(천 달러)	36,396	104,428	109,467	농산물, 비금속광물, 광물성연료
투자실적	(2004년 말 현재, 순투자기준) 3건, 5,198천 달러(도소매업)			

2. 경제 현황

(1) 일반경제현황

- 그리스는 2000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GDP(2004년)는 1만 8,471달러임.
- 물가상승률은 200년 2.9%, 2005년 3.5%로 추정됨.

<표 IV-3> 그리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제 성 장 른	4.3	3.6	4.5	4.2	3.7
1 인 당 GDP	11,100	12,590	16,060	18,471	-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6	3.5	2.9	3.5

- 그리스는 무역거래가 활발한 나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92억 달러 수준임(2004년).

<표 IV-4> 그리스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e
환율(달러당, 연말)	EUR	1.0747	1.1347	0.9536	1.2610	1.3540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9,820	-9,400	-10,405	-11,225	-9,200
상 품 수 지	"	-20,238	-19,087	-21,452	-25,606	-30,700
수 출	"	10,202	10,615	9,868	12,578	11,100
수 입	"	30,440	29,702	31,320	38,184	-41,800
서비스수지	"	7,953	7,867	9,546	13,033	12,100
자 본 수 지	"	12,942	2,690	13,096	7,578	-
외 환 보 유 액	"	13,116	4,787	7,629	3,843	744
총 외 채 잔 액	"	56,800	60,400	63,400	65,500	-
총외채잔액/GNI	%	-	-	-	-	-
D S R	%	34.3	35.3	35.6	32.4	24.8
단기외채/총외채	%	-	-	-	-	-

제5장

슬로베니아

1. 기본 사항

- 우리나라의 약 1/11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 면적을 가짐.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부존 자원도 취약함.
- GDP는 322억 달러(2004) 달러이고, 1인당 GDP는 16,089달러(2004)로 구 유고 독립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하나, 경제성장을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구조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2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건설업으로 5.7%, 농림수산업이 2.7%를 차지함.

<표 V-1> 슬로베니아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유럽 아드리아해 북동부
	·면적: 2만 km ² (한반도의 약 1/11)
	·기후: 지중해성
	·인구: 200만 명 (2003)
	·수도: Ljubjana (32만 명)
	·민족: 슬로베니아인 91%, 크로아티아인 3%
	·언어: 슬로베니아어, 헝가리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종교: 가톨릭 75%, 세르비아 정교, 청교도
정치	·독립일: 1991. 6. 25 (구유고연방)
	·정부형태: 의회민주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국가원수: Janes Drnovsek
	·의회: 양원제 (국가의회의 90석, 국가위원회 40석)
	·국제기구가입: CEFTA, World Bank, IMF, WTO, IAEA, EU 등
	·GDP: 322억 달러 (2004)
경제	·1인당 GDP: 16,089 달러 (2004)
	·화폐단위: Tolar (SIT)
	·산업구조: 농림수산업 2.7%, 제조업 29.0%, 건설업 5.8% (2004)
	·주요수출품: 기계·운송장비 36.1%, 제조업품 25.3%, 잡화 17.3% (2003)
	·주요수입품: 기계·운송장비 35.2%, 제조업품 23.4%, 잡화 11.0% (2003)
	·주요부존자원: 석탄, 우라늄
	·경제개발계획: 연금제도 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적 강점: 교역 관련 제도 및 제조업 기반 구비
	·경제적 약점: 내수시장 협소, 부존자원 부족

2. 경제 및 대외거래 동향

-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내외로 부진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소 회복됨.
- 물가상승률은 2000년과 2001년 각기 8.9%와 8.4%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 이후 하향세에 들어서 2004년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함.
·경상수지는 2001년과 2002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됨.
- 총 외채 잔액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에는 147억 달러를 기록함.

<표 V-2> 슬로베니아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백만달러, %)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e
경제성장률	3.9	2.7	3.3	2.5	4.6
1인당 GDP(달러)	9,105	9,443	11,004	14,082	16,089
소비자물가상승률	8.9	8.4	7.5	5.6	3.6
경 상 수 지	-548	31	325	-99	-213
상 품 수 지	-1,139	-619	-252	-625	-975
수 출	8,808	9,343	10,471	12,913	15,778
수 입	9,947	9,962	10,723	13,538	16,753
외 환 보 유 액	3,110	4,244	6,853	8,343	8,662
총 외 채 잔 액	6,217	6,717	8,799	12,500	14,700
총외채잔액/GNI	-	-	-	-	-
D S R	9.1	14.1	13.8	12.9	13.9

3. 한국업체 진출 현황

- 우리나라와는 1992. 4. 15 수교함(북한과는 1992. 5. 12 수교).
- 양국간에 체결한 주요 협정으로는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문화협정(1997), 이중과세방지협약(2005)년 등임.
- 투자실적을 보면, 2004년 말 현재 순투자기준으로 1건, 84만 달러(제조업)의 투자가 이루어짐.

- 양국간 무역 실적은 <표 V-3>과 같음.

<표 V-3> 한-슬로베니아 무역 실적

항목	2002	2003	2004	주요 품목
수출(천 달러)	54,322	71,121	75,312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수송기계, 전기기기
수입(천 달러)	14,881	21,732	20,950	

- 지금까지 슬로베니아에 진출한 한국건설업체와 수주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제6장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1. 기본 사항

- 종전 후인 1996~99년까지 국제 원조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취약한 산업기반, 만성적인 재정적자, 고실업률, 불리한 투자환경, 양 체제간의 상이한 경제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급격한 경제개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EU가입을 위하여 최근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대외개발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현상임.

<표 VI-1>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아드리아해 동남부 내륙 ·면적: 5.1만 km ² (한반도의 1/4) ·기후: 대륙성 기후 ·인구: 400만 명 (2004) ·수도: 사라예보 (Sarajevo, 53만 명) ·민족: 회교계 44%, 세르비아계 31%, 코로아티아계 17% ·언어: 세르보-크로아트어 (공용어) ·종교: 이슬람교 40%, 세르비아정교 31%, 가톨릭 15%
정치	·독립일: 1992년 3월 2일 (구유고연방) ·정부형태: 공화국연합 (Srpska 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국가원수: 3인 공동 대통령 (2002.10 선출, 8개월씩 윤번제), 파라비치(Borislav Paravac), 초비치(Dragan Covic), 티히지(Sulejman Tihuc) 순 ·수상: 테르지치(Adnan Terzic) (2002.12 취임) ·국제기구가입: UN, World Bank, IMF, Council of Europe
경제	·GDP: 82억 달러 (2004) ·1인당 GDP: 1,944 달러 (2004) ·화폐단위: Marka (KM) ·산업구조: 제조업 31.9%, 농·어업 14.9%, 서비스업 52.8% (2003) ·주요수출품: 목재 15.2%, 비금속 24.9%, 원광석 11.8% (2004) ·주요수입품: 기계 15.5%, 원광석 12.7%, 식료품 11.7% (2004) ·주요부존자원: 석탄, 철광석, 납, 아연 ·경제개발계획: 공기업 민영화 및 조세제도 개혁 ·경제적 강점: 풍부한 수력자원 ·경제적 약점: 내전 이후 경제회복 지연

-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 민족간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일된 국민성을 찾기 어려우며, 3년 반에 걸친 내전에서 각 민족 계파 간 인종 청소를 자행, 민족간 거주지가 뚜렷이 구별되는 등 상호갈등과 불신이 상존하는 국가임.
- 더욱이 2002년 10월 총선 결과 다민족지향의 온건노선 정당연합인 집권당이 패배하고 연방과 RS(Srpaska 공화국)에서 각각 민족주의 정당들이 세력을 얻게 됨에 따라 정치·사회적인 긴장과 대립의 정도는 이전보다 증가되어 있음.

2. 경제 현황

○ 일반 현황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석탄, 망간, 은 등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구 유고연방 시절에도 마케도니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음.
- 1992~95년 기간 중 내전으로 인해 경제기반 시설의 약 80%가 파괴되어 생산급감과 실업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러, 전후 국제원조를 통한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직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연방과 RS 모두 실업률이 약 40%에 이르고, 암시장 등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정책

- 1998년 Marka화의 환율을 마르크화에 고정시킨 신 통화정책(통화위원회 제도)을 채택하였고, 사유관련법률 제정, 파리클럽과의 채무연장 합의, IMF와 Stand-by

Agreement(확대협약)³⁾를 체결하였으며, 2002년부터 빈곤퇴치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함.

- 2003년 1월 출범한 Terzic 총리 정부는 중점 시책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 개혁추진, EU에의 통합 노력 등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외국기업이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단일 경제지역 형성, 사법제도 개혁, 국가 차원의 각종 제도 강화, 사유화 완성, 법치주의 확립, EU와의 남동구 안정화협약(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for South East Europe: SAA) 체결 추진, WTO가입 등을 포함하는 개혁을 추진 중임.

○ 최근 경제 동향

- 2002년 5.5%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국내 수요가 다소 위축되어 2003년 실질 GDP 성장은 3.5%에 그침. 그러나 EU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회복, 국내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사업환경의 개선이 예상됨.
- 관대한 사회주의식 복지제도, 과다한 군비지출, 전후 복구수요 등 막대한 재정지출 수요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공기업 민영화와 긴축 재정을 통해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 물가는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정책 유지로 2000년에 6.3%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3.1%에 이어 2004년에는 0.8%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안정을 유지함.

3) '스텐바이 협약'이란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적자로 단기적인 보전재원이 필요한 경우 쿼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조건하에 추가적인 협의절차 없이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서 1953년에 도입됨. 동 협약체결 가맹국은 협약내용의 일부로서 합의된 정책준수사항 등 제반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을 충족하였을 경우 협약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IMF로서는 동 협약을 통하여 가맹국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책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당해 가맹국이 IMF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VI-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e)
경제성장률	5.4	4.4	5.5	3.5	5.0
재정수지 / GDP	-7.0	-3.3	-2.2	0.4	-0.1
소비자물가상승률	6.3	3.9	3.1	0.9	0.8

자료: EIU, Moody's; 수출입은행, “국가개황”, 재인용.

○ 대외 거래 동향

- 내전 후유증으로 수출기반은 빈약한 반면, 막대한 전후 복구수요로 인해 수입 규모가 수출의 3배에 달해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
- 2000년 이후 정체 상태에 있던 수출은 독일,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의 주요 교역국과 EU의 경기회복 조짐에 힘입어 2003년에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은 확대됨.
- 1999년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3년 중반까지 연방은 약 77%, RS는 약 47%가 진행됨.
 - 분야별로는 금융분야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공공산업 분야는 초기단계에 머무름.
- 오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동국에 대한 FDI 유입은 2002년까지 부진한 실적을 보임. 그러나 2003년 들어 연방과 RS 모두 여러 부문에서 FDI 유치 및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사라예보 소재 국영호텔을 매각하는 등 2003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공적채무 잔액은 2004년 3월 기준으로 약 21억 달러에 이름.
 - 이중 94%에 해당하는 19.7억 달러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의 대부분은 교육, 건강 및 사회보장부문 정부 재정지출에 충당하고 있음.

- DSR은 2002년 12.6%에서 2003년 7.0%로 개선되어 남동유럽지역 국가 평균보다 양호하며, 외환보유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VI-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요 국제 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e
경 상 수 지	-1,032	-1,217	-1,694	-2,038	-2,200
상 품 수 지	-3,297	-2,622	-2,960	-3,404	-4,200
수 출	1,130	1,134	1,110	1,438	1,800
수 입	3,984	4,092	4,449	5,383	6,000
외 환 보 유 액	486	1,215	1,318	1,792	2,407
총 외 채 잔 액	2,443	2,283	2,853	2,920	-
총외채잔액/GNI	51.2	43.4	48.8	40.0	-
D S R	8.3	13.4	12.6	7.0	-

3. 정치·사회 현황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면서 명목상 국가연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낮은 상태임.
 - 1992년 발발한 내전이 1995년 Dayton 평화협정으로 종결된 이후 아직까지 NATO와 EU의 감시 하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
 - BiH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인 2개 국가인 이슬람계(보스니아인)-크로아티아계 연방과 세르비아계인 RS가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국가에 각각의 의회가 있고 중앙의회(하원 42석, 상원 15석)는 양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및 세르비아계 각 민족대표 3인이 8개월을 주기로 대통령위원회 의장직을 수행(2004.2.28, 이슬람계인 Sulejman Tihic)하고 있음.

- 행정은 대통령위원회의 지명과 하원의 승인으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총리 (2003.1, 이슬람계인 Adnan Terzic 취임)와 9명의 각료협의회가 담당함.
- 대외정책, 통상, 교통, 통신시설 등에 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국방, 경찰, 조세, 환경정책 등에 관한 권한은 연방과 RS에 각각 귀속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함.
- 2002년 총선에서 민족주의 정당이 다시 득세함에 따라 정당 간에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음.
 - 다만, NATO 주도의 평화유지군,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EU Police Mission, Dayton 평화협정 이행감시기구인 OHR 등이 주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내전이나 체제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4. 한국업체 진출 현황

- 우리나라와는 1995년 12월 15일 수교함(북한과는 1996년 1월 19일 수교).
- 양국간에 체결될 주요 협정이나 투자실적은 아직까지 없으며, 단순히 양국간 상품의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VI-4> 한-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무역 실적

항목	2002	2003	2004	주요 품목
수출(천 달러)	2,831	5,499	43,216	수송기계, 산업기계, 화학제품, 섬유제품
수입(천 달러)	78	23	108	

- 지금까지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 실적은 전무함.

제7장

크로아티아

1. 기본 사항

<표 VII-1> 일반 현황

면적	57천 km ²	GDP	339억달러(2004년)
인구	4.5백만명 (2004년)	1인당 GDP	7,691달러(2004년)
정치체제	의회민주제	통화단위	Kuna(HRK)
대외정책	친 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6.04(2004년말)

- 크로아티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였으며,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임.
 - 독립 이후 1990년대에는 동국 내 세르비아계와의 무력 충돌, 보스니아 내전 개입,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후유증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는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
- 2000년 출범한 신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화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 EU 가입예정국으로 2002년 결정되었으나, 2005년 3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가입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양질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슬로베니아에 이은 발칸지역의 체제전환 선도국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도 양호한 편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발칸지역 내에서 높은 편임(2004년 기준 7,691달러).

2. 경제 현황

(1) 국내경제지표

- 크로아티아는 2000~2004년에 2.9~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4년 경제성장률이 3.7%로 저조한 것은 2004년 하반기에 Zagreb-Rijeka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종결되었고, Zagreb-Split 고속도로 투자 지출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표 VII-2> 국내경제지표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2.9	3.8	5.2	4.3	3.7
재정수지/GDP	- 4.0	- 2.3	- 2.2	- 6.3	- 4.5
물가상승률(%)	5.3	4.8	1.7	0.1	3.7

자료: IMF, IFS 및 EIU, Country Report, 한국수출입은행, 2005. 5.

- IMF 차관 수혜 조건으로 긴축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정지출이 엄격하게 운용됨에 따라 정부지출이 위축되었음.
- 이에 따라 장기 도로건설 프로그램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연되면서 2005년도 경제성장률도 4%대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정부의 예산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수익 및 세수의 저조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대부분 보전되고 있으며, EU 가입 협상이 시작되면 재정수지 적자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03년 6.3%, 2004년 4.5%를 기록함.
- 2004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제3차 GSM 휴대폰 licence 매각의 지연과 세수 저조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IMF 대기성차관(Stand-by Agreement) 수혜조건으로 공공지출 억제 등 강력한 긴축예산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도 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05-8)에 의거, 재정적자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지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 IFC가 주도하는 민영화 및 리스트럭처링 지원사업 등 구조개혁 및 제도정립을 통하여 more balanced economy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과거 경제성장은 높은 공공투자지출과 여신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인한 경향이 있음).
- EU 가입 이전에 15억 달러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EU 가입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3억 달러선로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물가상승률이 2004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입물가 상승(높은 국제 원유가 등) 및 생필품 가격 인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관리대상 품목인 용수, 연료, 주류 및 식료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자동차·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 3.7%로 상승하였음.
- 2005년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2004년 1/4분기: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료품 가격 급상승에 주로 기인함.

(2) 대외거래 동향

- 환율은 중앙은행(CNB) 등 금융통화당국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Kuna화 축소시키기 위하여 강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 등을 통하여 환율 관리능력 향상 및 유동성(liquidity) 안정에 노력 중임.
- Kuna화의 실질 실효환율의 점진적 상승세로 인하여 유로존 지역에서의 수입 수요가 위축되어 수출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수출산업 구조를 보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전체 수출액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이탈리아, 독일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임.
- 2004년 기준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탈리아(25%) 및 독일(10%)에 대한 교역 의존이 심화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이 대외거래의 주요 변수임.

- 다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주변국과에 대한 수출실적이 최근 급증하면서 교역대상국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에는 주요 수출품목(광물연료, 기계류 및 운송장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출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
- 광물연료 및 운환유(국제 고유가의 영향), 기계류 및 운송장비(선박 등)의 수출 급증, 유로존 시장의 수입수요 위축,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한 소비세 도입 등이 수출산업 성장의 주요 원인임.

<표 VII-3>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수지	- 461	- 725	- 1,946	- 2,092	- 1,789
경상수지/GDP	- 2.5	- 3.7	- 8.5	- 7.3	- 4.9
상품수지	- 3,204	- 4,101	- 5,649	- 7,908	6,215
수출	4,567	4,759	5,004	6,308	8,004
수입	7,771	8,860	10,652	14,216	1,789
외환보유액	3,377	4,596	5,883	8,190	8,758
총외채잔액	11,344	11,360	15,347	23,672	25,648
총외채/GDP	63.0	59.7	70.0	82.3	76.9
DSR	28.6	31.2	25.9	22.0	18.5

자료: IMF, IFS, World Bank, GDF 및 OECD, CRAM, 한국수출입은행, 2005. 5.

- 경상수지를 보면 2005년에는 상품 수출 증가세 지속, 수입증가 억제(도로건설 프로젝트 및 자동차 수입 증가율 둔화)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로 대외자금 포지션 개선이 기대되나, 외국계 은행들의 고수익 소매금융(리스 및 직접차입 등)을 위한 해외차입 증가(민간부문의 단기차입 증대) 및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경상수지의 큰 폭의 호전은 이루어지지 않음.
- 1995년 30% 이하에 머물렀던 GDP 대비 정부채무규모는 2003년말 58%를 기록하며 EU 신규회원국 10개국의 평균치인 34%를 크게 상회함.

- 이 같은 추세는 1990년대 말 은행 위기(banking crisis)의 여파로 금융기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정부는 이들 기관에 보증 및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채무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3. 정치·사회 현황

- 2005년 1월 16일 치러진 대선에서 Mesic 현 대통령이 66%의 득표율로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 계열의 Jadranka Kosor 부총리를 크게 앞지르고 재선(5년 임기)에 성공함으로써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05년 4월 HDZ는 스캔들 사건과 연루된 외무부장관 및 보건부장관(부총리 겸직)의 의원직을 경질하였음.
- 2003년 11월 총선에서 전체 152석 중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DP)이 43석, 최대 야당인 HDZ는 66석을 차지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음.
- 2005년 2월 여론조사에서 SDP가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HDZ를 앞섰으나, 2005년 4월 여론조사에서는 HDZ가 SDP를 다시 역전하는 등 양당이 엇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각각 20% 대의 지지율 수준).
- 2004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3월 17일에 크로아티아 정부와 EU 가입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1995년 크로아티아 지역 내 세비아인 학살 등 유고사태에 가담하였던 Ante Gotovina 장군에 대한 전범처리 문제, 특히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TY) 회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함.
- 이로 인해 2007년으로 예상되었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유고사태 후 슬로베니아와의 국경 분쟁이 잠재되어 있으나 최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슬로베니아가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양국 간 관계는 호전되는 양상임.

4.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채무 정상 상환중

- 1991년 구 유고연방에 대한 외국 상업은행의 대출 보증 건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하였으나, 1995년 3월 파리클럽(Paris Club)과 동 채무의 28.5%에 해당하는 11억 달러에 대하여 14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리스케줄링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음.
- 2002년 이후 EU 가입 후보국으로 예상되면서 대외교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증가에 따른 단기외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4등급('03. 1) → 4등급('05. 1)
- I.C.R.G. : 56/140('03. 6) → 54/140('05. 5)
- Euromoney : 60/185('03. 3) → 50/185('05. 3)
- I.I. : 58/151('03. 3) → 59/173('05. 3)

(3)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투자적격 수준 유지

- S&P : BBB- (1997. 1), BBB (2004. 12)
- Moody's : Baa3 (1997. 1)

제8장

마케도니아

1. 기본 현황

-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에 위치한 국가임.
 - 현 영토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의 남단이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세워지면서 현 국경이 확정되었고,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국경 변경 없이 평화적으로 분리독립하였음.
- 국명에 마케도니아를 쓰는 것에 대한 그리스의 반대로 인해 외교계에서는 마케도니아 전유고슬라비아 공화국(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줄여서 FYROM)으로도 불림.

<표 VIII-1> 일반 현황

면적	26천 km ²	GDP	51억달러(2004년)
인구	2백만명 (2004년)	1인당 GDP	2,574달러(2004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Macedonian Denar(Den)
대외정책		환율(달러당)	45.07(2004년말)

2. 경제 현황

(1) 국내경제지표

<표 VIII-2> 국내경제지표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4.5	-4.5	0.9	3.4	0.5
물가상승률(%)	6.6	5.2	2.3	1.1	-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 5.

- 마케도니아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0.5%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4.5%를 기록한 후 저성장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VIII-3>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수지	- 72	- 244	- 358	- 279	- 396
상품수지	- 690	- 527	- 804	- 852	-1,117
수출	1,321	1,155	1,112	1,358	1,673
수입	2,011	1,682	1,916	2,211	2,790
외환보유액	429	743	716	897	904
총외채잔액	1,455	1,463	1,663	1,837	-
DSR	6.5	11.5	13.5	12.0	1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 5.